

특별회의

- 국가폭력과 트라우마

제국의 그림자: 대만 1947년 2월 28일 사건의  
“외국인 피해자” 및 정의와 화해를 향한 여정

요시히사 아마에 [대만 장영대학교 부교수]

## 서문

1947년 2월 28일 사건 (이하 “2/28”)은 계엄령에 따라 대만에서 오랫동안 금기시되었는데, 1987년에 계엄령이 해제되면서 점차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1995년 이등휘 총통은 그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피해에 대해 사과했으며, 정부는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배상과 같은 정의를 바로잡는 조치를 취했다. 중국어로 작성된 2/28 사건 관련 문헌은 방대하지만,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 영어와 일본어 문헌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Kerr 1965; Lai, Myers, Wei 1991; He 2003). 대부분의 문헌은 대만 원주민의 희생과 가해자인 중국의 잔인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일본인, 오키나와인, 한국인과 같은 외국인 희생자들에 대한 언급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이것은 외국인 희생자들의 존재가 아주 최근까지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고 [2015년에 아오야마 에사키(*Aoyama Esaki*)가 대만 정부에 의해 최초의 외국인 희생자로 인정됨] 그 숫자도 적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납득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2020년 8월 현재 공식적으로 “피해자”로 인정되어 대만 정부로부터 배상을 받은 외국인은 3명 (일본인 2명, 한국인 1명)뿐이다. 오키나와 출신의 다른 세 가족은 배상을 신청했지만 아직까지 배상을 받지 못했다. 오키나와 출신 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오키나와 출신 피해자는 30명 정도로 추정된다 [마타요시 (Matayoshi) 2018 : 348]. 한국인 중에서도 희생자가 있었다(남자 3명 사망, 여자 1명 부상). 또한, 2/28 사건 기념 재단이 2018년 10월부터 2020년 2월 사이에 발표한 2/28 사건 피해자 명단에 포함된 1,461명 가운데 8명은 일본인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2020년 228사건 기념 재단).

외국인 피해자 보다 대만인으로 간주되는 사망자 수(수백명에서부터 십만명까지 다양하게 추정<sup>2</sup>)가 훨씬 많다. 사망자 숫자나 사건 지속기간, 전체 인구 중 사상자 비율 등 여타의 관련 수치들을 근거로 얼마나 엄청난 정치적 비극이 발생 했었는지 말할 수 있지만, 사람의 목숨을 단순히 숫자만으로 나타낼 수는 없다. 단 한 명의 생명도 소중하기 때문이다. 사건의 희생자 (2/28 사건의 경우, 대부분 남성)는 누군가의 아들, 아버지, 남편이자 친구이다. 희생자들의 부재는 남은 사람들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희생자가 세대주이자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었을 경우, 나머지 가족에 대한 충격이 더 클 수 있었다. 외국인들도 그들의 불안정한 사회적 정치적 지위로 인해 대만 국민들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비극을 비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비극에 수반되는 고통과 트라우마는 매우 주관적인 현상이다. 고통을 일반화하는 것은 본 논문의 목적과는 무관하다.

본 논문의 주요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 목적은 2/28 사건의 외국인 피해자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이다. 그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어떻게 이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는가?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해자를 잃고 어떤 고통을 겪었는가? 피해자의 가족들은 트라우마에 어떻게 대처했는가? 저는 그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지 역사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대만의 원주민은 피해자, 중국 대륙 출신 이주민은 가해자라는 고착된 이원론을

넘어선 관점에서 2/28 사건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필자는 소위 “불쌍한 피해자들” 중에도 미묘한 계층 구조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일례로, 2/28 사건 피해자에 대한 논의에서 일반 시민보다는 사회/정치적 엘리트가 더 많은 주목을 받는다<sup>3</sup>. 중국 본토 출신 피해자들은 폭력을 행사한 국가기구 및 그 대리인들과 동일시되어 간과되기 쉽고, 외국인은 중요하게 다루어 지지 않는다. 따라서 2/28 사건의 외국인 피해자는 2/28사건에 관한 논의에서 소외되어 왔다. 대만 원주민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민주진보당의 지원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알릴 수 있었지만, 외국인 피해자들은 1990년대의 정치적 자유화 이후에도 여전히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사회의 하층민과 같은 입장에서 침묵 속에 지내왔다. 외국인 피해자들에 대한 홀대는 기억의 정치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비(非) 중화민국 시민들은 2016년까지 정당한 정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였다. 이러한 관행은 아이러니하게도 국가기구와 국가기구의 폭력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지만, 정부(그것도 민주 정부)와 정부가 표방하는 정의는 사람을 차별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논문의 두 번째 목적은 2/28 사건의 “일본에 의한 요인”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는 피살된 외국인 희생자들(일본인, 오키나와인, 한국인)을 비롯한 사건에 관련된 피해자들에게 일본 제국주의가 가한 고통을 생각해 보는 것이다. 그런데, 2/28 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1년 몇 개월 전만 해도 앞서 언급한 희생자들은 대만인들에게 “외국인”으로 여겨지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들은 일본 제국주의라는 한 국가에 속한 사람들이었으며, 그 속에서 오키나와인은 형, 한국인은 동생, 대만인은 막내 [마타요시(Matayoshi) 2018 : 111]로 간주되었다<sup>4</sup>. 오키나와인과 한국인은 일본 제국이 주도한 정치적인 병합과 국가 통합의 결과로 대만에 머물게 되었다. 즉, 2/28 사건의 비극을 통해 부각된 외국인 피해자들로 인해 대만의 원주민과 대륙 출신 중국인 사이의 대립과 그에 따른 정치적, 국민적 트라우마에서 진행된 드라마와 야만적인 국가 폭력의 표면 아래 숨어 있던 문제가 드러난다. 분명히 일본과 일본의 대리인은 2/28 사건 당시에 현장에 없었다. 대만에 머물던 일본 당국은 1945년 10월 25일에 국민당(KMT)에게 항복했으며, 1946년 4월까지 대부분의 일본 국민들이 고국으로 송환되었다. 하지만 일본의 영향력은 물리적인 현존을 넘어서 지속되었다. 2/28 사건에 관한 담론의 행간을 살펴보면, “친중국”이거나 “친대만”이거나 여부에 관계없이 일본제국주의의 흔적이 드러난다. 예를 들면, 국민당은 대만 원주민들이 일본의 세뇌 교육에 중독되었다거나(혹은 노예화 되었다거나) 대만 원주민 폭도들이 자기 편을 “적”과 구별하기 위해 일본어를 사용했다고 비난한다<sup>5</sup>. 요컨대, 2/28 사건의 외국인 희생자의 존재는 과거 일본 제국주의 야심 뿐만 아니라, 식민 지배에 대한 일본 제국주의의 책임도 환기시킨다. 이러한 사실은 전후의 일본이 평화 애호국이 되었다는 담론에서 간과되기 쉽다.

## 2/28 사건의 외국인 피해자 계보

2/28 사건의 전날 밤에 자행된 불법 담배 판매업자에 대한 경찰의 폭력에 대항하여 2월 28일 대만 지방행정청 앞에서 일어난 대규모 시위 중에 총에 맞아 사망한 재외일본인위원회<sup>6</sup>

직원 키무라 토시오(*Kimura Toshio*)가 2/28 사건의 첫 희생자들 중 한 명이라는 것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키무라가 왜 위험한 시위 현장에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현장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임무를 받았거나 단지 호기심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 당시에 경비 대원들이 평화로운 시위대에 발포하여 여러 명을 죽이고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할 것 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커(Kerr) 1966 : 256]. 정부는 희생자의 가족과 일본인 공동체에 즉시 사과하였고 피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20만 대만 달러(구 대만 달러)를 지급했다 [(Kawahara) 1997 : 44]. 하지만 2월 28일 사건에서 살해되거나 체포되거나 실종된 다른 여러 명의 일본 국민들은 전술한 사과나 배상을 받지 못했다.

첸이(*Chen Yi*)가 1947년 3월 13일 장개석에게 보낸 공식 보고서에는 2/28 사건에 다른 2명의 일본인[호리우치 킨조(*Horiuchi Kinjo*), 우에사키 토라자부로(*Uesaki Torazaburo*)]이 연루된 것으로 보인다. 2/28 사건에 연루된 해당 일본인들의 이름은 보고서의 말미에 천신(*Chen Xin*)과 린마오성(*Lin Mao-sheng*)과 같은 18명의 대만인의 이름과 함께 추가되어 있다 [(중국근대역사학회 (*Institute of Modern History Academia Sinica*) 1992 : 177)]. 이 보고서만으로는 그들이 죽었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다른 자료에는 명단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 “반란군”으로 처형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해당 목록의 정보에 따르면 호리우치와 우에사키는 두 명 모두 “지하 요원”으로 분류되어 반란군 지원과 중국 본토인(외성인 : *Waishengren*) 살해 혐의로 기소되었다. 우에사키의 행적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으나 호리우치에 관한 자료는 남아 있다. 2016년 기밀 해제된 정부 기록물에는 호리우치가 어느 대만인과 함께 수십 명의 깡패를 고용하여 타이난의 화학 공장 점거를 공모하다가 당국에 체포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의 체포를 확인한 일본 보고서에 따르면 2/28 사건 중에 총 5명의 일본인(타이페이에서 3명, 까오슝에서 2명)이 체포되었지만, 호리우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석방되어 얼마 후 일본으로 송환된 것으로 추정된다. 호리우치의 대만 질소(*Taiwan Nitrogen*) [이전의 일본질소(*Nihon Nitrogen*)] 회사 동료인 요코타 시게루(*Yokota Shigeru*)는 국민당 정부가 공장을 인수한 후 직원 중 7명은 엔지니어로 대만에 남으라고 명령했다고 기억한다. 호리우치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1946년 12월 정부의 체류 연장 요청에도 불구하고 섬을 떠났다. 요코타는 호리우치가 제 2차 세계대전 중 폭발물 제조에 관여했기 때문에 연합국사령부(*GHQ, General Headquarters*)가 그를 전범으로 체포할까 두려워서 대만에 남기로 했다고 밝혔다 [요코타(*Yokota*) 1977 : 38]. 호리우치가 사건에 어떻게 관여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국립 대만대학교 의대 오세 타카미츠(*Ōse Takamitsu*) 교수는 호리우치가 반군을 돕기 위해 그들을 폭발물 보관 장소로 데려갔다고 밀고 당하여 체포되었다고 증언한다. 그런데, 대만질소의 또 다른 직원인 마사오 에가미(*Masao Egami*)에 의하면 대만 남성 여러 명이 폭발물 보관 창고를 열라고 호리우치를 총으로 위협했다고 한다[에가미(*Egami*) 1977 : 46]. 요코타는 몇 명의 대만인이 그에게 접근하여 중국 본토인을 대만에서 쫓아낼 수 있게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고 기억한다. 그는 그들로부터 수류탄 제조법을 가르쳐 달라는 요청을 받고서는, 쇠가 없기 때문에 수류탄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화약을 잉크병에 채우는 것이라고 마지못해 대답했다 [요코타(*Yokota*) 1977 : 38]. 호리우치는 체포 직후 처형된 것으로 보인다. 2019년 4월 호리우치는 국가로부터 2/28 사건의 희생자로 인정받았고, 그의 유족들은 배상금으로 600만 대만 달러(신 대만 달러)를 청구했다 (NHK 2019).

아오야마 케이쇼(*Aoyama Keishō*) : 외국인들의 희생에 대한 규명 착수

대만 정부는 1995년부터 피해자 배상을 시작했는데, 2020년 7월 1일 현재 867 가족들이 자신의 가족 구성원을 잃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정부로부터 배상을 받았다(2/28 사건기념재단, 2020). 2016년 2월에 아오야마 에사키(*Aoyama Esaki*)는 대만 정부로부터 2/28 사건 피해자로 인정받은 최초의 외국인이 되었다. 그의 아들 케이쇼(*Keisho*)는 2013년 처음 배상 신청을 했지만 2/28 사건 기념재단으로부터 중화민국 국적의 시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이 거부되었고 이후 동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타이페이 고등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케이쇼의 해당 판결로 2/28사건의 중화민국 국적을 가지 않은 피해자가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문이 열렸으며, 2017년에는 한국인 박선종(*Park Sun-jong*)이 2/28 사건 피해자로 인정받은 두 번째 외국인이 되었다[린(Lin) 2017]. 또한, 호리우치가 2019년 4월에 세 번째로 인정받은 외국인이 되었다.

아오야마 케이쇼가 2/28 사건 기념재단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는 카고시마현 아마미 오시마 출신으로 1933년 대만 지룽(*Keelung*)으로 이주하여 선원으로 일했다. 그는 1942년 오키나와 출신 여성과 결혼했고, 케이쇼는 이듬 해에 태어났다. 아오야마 에사키는 아들이 태어난 지 3 개월 뒤인 1943년 8월 일본 해군에 징집되어 하이난 섬으로 갔다. 가족은 전쟁 중에 그의 소식을 듣지 못했고 1946년 2월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의 사이공으로부터 그가 건강하게 살아 있음을 알려주는 엽서를 받았는데, 그가 왜 사이공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에사키는 5월에 큐슈 사세보로 송환되어 카고시마에서 그의 친척과 함께 지냈다. 그는 지룽에 있는 그의 가족에게 보낸 두 번째 엽서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나는 여기서 일하고 있고 [대만으로] 돌아갈 계획이 없으니 가족들이 곧 일본으로 오기 바란다” (아오야마 1946). 그 동안 대만의 가족들은 끈기 있게 송환을 기다리고 있었다. 대만에서 일본인의 송환은 1946년 4월에 시작되어 같은 해 6월에 끝났지만 오키나와인들은 12월까지 기다려야 했다. 그러는 사이 에사키는 대만으로 다시 밀항하기로 했다. 그는 1947년 2월 이시가키 섬에 있는 친척 집에 간 다음 배를 타고 대만으로 밀항했다. 생존자의 증언에 따르면, 3월 8일 지룽에 도착한 배는 국민당 군인들의 총격을 받았다. 승무원들은 모두 살기 위해 산으로 달려갔지만, 에사키와 선장 아들은 배에 남겨둔 것을 가지러 배로 돌아갔다(남겨둔 것이 무엇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른 승무원들은 두 사람이 트럭에 실려 군인들에게 끌려가는 것을 보았다 [나고시(*Nagoshi*) 2015 : 4-5]. 한편 케이쇼와 그의 어머니는 1946년 12월 23일 사세보에 무사히 도착했고, 2월 말에 카고시마에 있는 친척 집에 도착하고 나서 에사키가 대만으로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고시(*Nagoshi*) 2015 : 4].

케이쇼와 그의 어머니는 에사키의 귀환을 기다리다가, 2년 반이 지난 후에 오키나와에 있는 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이주한 지 얼마 뒤 그들은 이시가키의 친척으로부터

에사키가 “대만 봉기”에 관여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 당시에 6 살이었던 케이쇼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위로하러 온 것을 기억하지만, 어머니는 절망하여 일주일 내내 침대에서 나오지 않았다 [나고시(Nagoshi) 2015 : 5].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의 상실은 가족에게 큰 타격이었다. 케이쇼(*Keishō*)는 이렇게 회상한다. “저는 아버지를 잃었고 할아버지는 나이가 많았다. 어머니는 논밭에서 일을 못하셨기 때문에 바느질로 벌어들인 수입으로 간신히 생계를 이어 갔다. 우리는 매우 가난했다. 어머니는 전쟁에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정부로부터 배상을 받지만 우리는 아버지가 전쟁에서 죽지 않아서 배상을 받지 못한다고 한탄했다. 아버지 없이 외로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나고시 (Nagoshi) 2015 : 5-6].”

1980년대 후반이 되고 나서야, 케이쇼(*Keishō*)는 “2/28 사건”에 대해 알게 되었다. 2/28 사건 뉴스가 오키나와에서 방송되자 아버지의 죽음이 2/28 사건과 관련이 있음을 알았고, 행동을 실행하기로 결심했다. 우선 그는 지방법원에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어머니를 설득해야 했다. 그의 어머니는 남편이 홍콩이나 타이중(*Taichung*)에 살아 있다는 무당(*yuta*)의 얘기를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가족들은 남편과 아버지를 잃고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 케이쇼의 어머니는 심리적 충격으로 평생 정신 병원을 다녀야 했다. 1994년에 케이쇼는 마침내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법원에 제소하여 승소했다. 당시에 그는 오키나와 학자의 도움으로 2007년 타이페이에서 열린 2/28 사건 공식 기념식에 참석할 수 있었다. 배상금에 대해서는 2011년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다. 케이쇼에 의하면, 2/28 사건 기념재단은 처음에는 그의 신청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었으나, 재단의 배상 결정은 평등과 호혜의 원칙을 주장하는 내무부에 의해 거부되었다. 일본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기간의 일본군 위안부와 징집된 대만 남성들에게 배상하지 않았으므로, 대만도 배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케이쇼는 일본 정부의 제2차 세계대전 희생자에 대한 배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견해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자신의 신청이 거절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아오야마(Aoyama) 2018]. 법정에서 그와 그의 변호사들은 인권에는 국경이 없으며 대만 정부는 “보복”으로 대응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 그 밖의 오키나와 출신 2/28 사건 피해자들

다른 3 가족이 2/28 사건기념재단에 배상을 신청했지만, 안타깝게도 아오야마 가족과 달리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배상 신청을 거부당했다.

두 가족은 대만에서 동쪽으로 300km 이내의 오키나와현 야에야마 제도의 요나구니 섬 출신이며 한 가족은 이시가키 섬 출신이다. 일본 식민 통치 하에서 야에야마 제도와 대만 사이에는 긴밀한 교류와 무역이 있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두 지역이 서로 다른 주권국으로 분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초기의 과도기적이고 혼란스러운 시기에도 계속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의 침공으로 황폐화된 오키나와는 식량과 물자가 부족했고, 대만은 침공에서 벗어나서 물자가 풍부했다. 이와 같은 당시의 상황 때문에 섬 주민들은 불가피하게 밀수에 가담했다. 초기에는 밀수에 가담하더라도 위험이 적고 수익도

많았지만, 1950년 6월 한국 전쟁이 발발한 후에는 오키나와 주둔 미군이 국경을 더 엄격하게 통제하면서 밀수 행위는 결국 사라졌다 [야카비(Yakabi) 2005 : 50].

오나가 겐츄(*Onaga Genchu*)는 1916년에 이시가키에서 태어났다. 그는 10살이 되면서 대만으로 이주하여 역에서 수위로 일하면서 야간 학교에 다녔다. 오나가는 자신의 노력으로 역에서 더 높고 보수도 좋은 자리에 올랐다. 그는 이시가키 출신의 여성과 결혼하여 세 자녀를 두었다. 1944년 그는 타이페이 북부의 신히쿠토 (*Shinhokutō*) 역에서 조수로 일하는 동안에 제국군에 징집되었고, 운 좋게도 같은 지역에 주둔한 대대에 배치되었다. 전쟁이 끝난 후 가족은 국민당 지배하에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대만을 떠나 오키나와로 이주하기로 했다. 부부는 농사를 지었지만 생활이 어려워서 아내가 옷 수선점을 열자고 제안했고, 남편은 대만의 친구에게 남긴 재봉틀을 가져오려고 대만으로 간 후 돌아오지 않았다. 그의 아들은 어머니가 남편을 찾기 위해 헛되이 매일 부두에 나갔다고 회상한다.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가 실종된 후 가족들은 많은 고통을 겪었다. 어머니는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51세로 세상을 떠났고, 세 아이 모두 재정적 어려움으로 중학교까지만 다닐 수 있었다 [오세키(*Ōseki*) 2015].

요나구니 섬 출신의 나카타케 미노루(*Nakatake Minoru*)와 이시소코 카네(*Ishisoko Kane*)는 1947년 3월에 배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구입하기 위해 지룽에 입항했다가 피살되었는데, 그 비극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사건 당시에 5 살이었던 이시소코의 딸 미치에(*Michie*)는 당시의 일을 많이 기억하지 못한다. 그녀의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해 한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어머니가 아버지의 죽음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2010년 98세의 나이로 돌아가신 어머니는 “아버지의 기일인 2/28을 잊지 말아라 [류큐신보(*Ryūkyū Simpō*) 2017]”라고 말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남편을 잃고 혼자서 네 아이를 키우면서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 그녀의 트라우마는 아직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다. 미치에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버지에 대해 얘기할 때, 우리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으신 어머니가 생각나서 눈물이 납니다 (류큐신보 2017)”라고 고백한다. 해당 기사에서 그녀는 대만 정부에게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개인적인 비극은 비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가족 구성원의 상실로 인한 각 개인의 고통은 주관적이고 절대적인 현상이라서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나카타케의 딸 하츠코(*Hatsuko*)의 이야기는 특히 비참하다. 하츠코는 아버지가 사라졌을 때 겨우 10살이었다. 아버지를 잃은 것도 비극이지만 그녀에게는 이것은 비극의 시작에 불과했다. 친척들은 비극에 대해 어머니를 비난했기 때문에 그녀의 아버지를 잃은 것은 또한 그녀의 어머니를 잃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그녀가 이전에 남편에게 대만에서 사업을 하자고 제안했기 때문에 그가 죽었다는 것이다. 결국 그녀는 하츠코와 6살 어린 남동생을 남겨두고 집을 떠났고, 하츠코는 어머니가 자신들을 버린 사실에 상처를 받고 화가 났다. 두 사람은 나중에 친척 아주머니에게 입양되었다. 부모를 잃은 이후 두 사람은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빗나가기 쉽다는 사회적 편견에 시달렸고 학교와 집에서 괴롭힘을 당했다. 한번은 그녀의 남동생을 집에서 돈이 없어졌다고 도둑으로 의심하면서 묶어놓고 음식도 주지 않았다. 나중에 돈은 집주인이 다른 장소에 둔 것으로 밝혀졌지만, 남동생은 사과를 받지 못했다. 부모가 없는 하츠코는 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했고 논밭에서 일해야 했기 때문에 학교에 갈 시간도

없었다. 게다가 그녀는 친척 아주머니의 시동생과 결혼하도록 강요당했고, 아주머니를 시중하기 위해 집에 있어야 했다. 그녀가 이 결혼을 거부하자, 그녀는 기둥에 묶였고 나가지 말라고 협박당했다. 하츠코는 그 고통을 회상한다. “저는 그 당시에 받은 고통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둘 사이에 사랑이 없어도 아기가 생긴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아오야마(Aoyama) 2016 : 125].

##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의 치유

앞서 언급된 오키나와의 세 가족에게 아직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지만, 진실을 찾는 과정에서 조금씩 치유가 시작되었다. 아버지의 죽음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하츠코와 그녀의 가족은 그녀의 어머니가 아이들이 잘 지내는지 보려고 동네에 몰래 여러 번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츠코는 그러한 증언을 듣고 어머니에 대한 분노와 괴로움이 “10에서 5”로 줄었다고 느꼈다 [아오야마(Aoyama) 2016 : 124]. 이시소코 가족과 나카타케 가족은 모두 아오야마 케이쇼가 이끄는 비영리 단체인 대만 2/28 사건에 대한 오키나와진실추구협회 (OATS, *Okinawan Association for Truth Seeking*)의 회원이다. 피해자 가족들은 가족 구성원의 죽음이 1947년의 “대만 봉기”와 관련이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사건의 세부 사항은 최근에 알게 되었다. 아오야마는 “저도 20년 전에야 사건을 자세히 알게 되었다. 하츠코 같은 사람들은 사느라 바빠서 그런 일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츠코는 딸을 통해 2/28 사건을 알게 되었고, 어느 날 2/28 사건 피해자를 찾고 있다는 지역 신문 기사를 읽었다. 하츠코는 인터뷰에서 “아오야마 씨가 아니었다면, 2/28 사건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아오야마(Aoyama) 2016 : 126-7].”라고 말했다.

## 공식 기념행사 및 역사적인 기억의 현장 순례

대만 2/28 사건에 대한 오키나와진실추구협회(OATS)는 2014년부터 매년 2월 말에 대만을 여행한다. 대만 방문의 주요 목적은 타이베이의 2/28 공원에서 열리는 공식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것이다. 검은 옷을 입은 미치에와 하츠코는 2017년의 행사장에 아버지의 사진을 무릎 위에 들고 나란히 앉았다. 이것은 대중과 언론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부당한 살인과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의 결정에 대한 항의이기도 하다. 또 다른 순례지로는 지룽시의 허핑다오(Hepingdao) [일본 통치 시절의 명칭은 샤료토(Sharyōtō)]가 있었다. 이 곳을 방문하는 회원들은 “무명의 사망자”를 모시는 작은 대만 절에서 공식 기념식을 거행한다. 지룽 북쪽 끝에 위치한 허핑다오는 1930년대에 350명의 오키나와 주민들이 살았던 곳으로, 그 가운데 일부는 전후에도 그 지역에 남아 있었다 [마타요시(Matayoshi) 2018 : 345-348]. 오키나와 희생자의 유골은 2/28 사건 전후에 이 지역에서 발견된 다른 많은 신원불명의 시체들과 함께 그 사원에서 화장되고 봉헌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피에르 노라(Pierre Nora)의 표현으로 말하면,



허핑다오는 ‘*a lieu de mémoire*’, 즉 방문객의 기억을 불러 일으키는 장소이다[노라(Nora) 1989]. 희생자 가족들은 DNA 검사를 통해 유골이 자신들의 가족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지만, 지금까지 절에서는 DNA 검사가 귀신이나 신을 화나게 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그러한 과학적 연구에 동의하는 것을 꺼려 왔다. 공식 기념식에서는 오키나와에서 온 방문객들이 단순히 손님의 역할만 했지만 허핑다오에서는 방문객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절차와 의식을 준비하여 기념 행사를 진행한다. 아오야마가 절의 역사를 설명하고 절을 운영하는 대만 관리자를 일행에 소개하고 선물을 전달한 후, 희생자의 가족과 친구들은 사타 안다기(*sata andagi*: 오키나와 도넛)와 아와모리(*awamori*: 쌀로 만든 증류주) 같은 오키나와에서 가져온 제물(음식과 음료)을 올려서 제사상을 차린 다음 오키나와에서 가져온 향을 태우고 기도한다. 의식의 하이라이트는 하츠코가 제단 앞에서 야에야마의 민요 투바라아마(*Tubaraama*)를 부르는 것인데, 이 노래에는 정해진 가사가 없다. 전통적인 리듬에 따라 그녀는 다음과 같은 야에야마의 사투리로 자신만의 노래를 부른다.

산과 바다를 보면 아버지의 집이 생각나

아버지가 우리를 떠난 후 이제 나는 당신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이 고향의 산과 바다를 잊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필자의 번역].

짧은 노래의 시간은 30초 정도이지만, 마법처럼 방문객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이게 한다. 하츠코는 이 곳을 방문할 때마다 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녀의 아버지에게 바치는 개인적인 노래가 오키나와 출신 2/28 사건 사망자를 위한 진혼곡이 되었다.

아오야마 일행은 허핑다오 절에서 기념식을 하고 타이베이에서 열리는 공식 2/28 사건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 이외에도 타이베이의 아마(Ama)<sup>7</sup> 박물관을 방문하는 일정을 진행한다. 2016년에 개관한 이 박물관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위안부'를 기념하는 곳이다. 2/28 사건과 위안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두 가지 모두 아오야마의 신청이 거절되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2013년에 아오야마가 신청 자격이 없다는 통보를 받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중화민국 시민이 아님 2) 일본 정부가 일본군에 징집된 과거의 대만인과 위안부에 대한 배상 책임 거부 당시 마잉주(*Ma Ying-jeou*) 총통이 이끄는 국민당 정부는 평등과 호혜의 원칙을 적용하여, 일본 정부가 대만인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만 정부도 2/28 사건의 일본인 피해자에 대한 배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제2차 세계대전의 대만 희생자들에게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타이페이 고등법원은 인권의 보편적 성격에 입각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매우 진보적인 입장을 지지하고 위안부에 동정적인 아오야마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존엄성이 짓밟힌 여성들을 돌보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 2/28 사건의 한국인 피해자들

제 2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 거의 400여명의 한국인들이 대만에 남아 있었다. 일부는 스스로 대만에 머물기로 선택했으며, 일부는 어쩌다보니 대만에 머물게 된 것이다 [아마에(Amae) 2020]. 그들 대부분은 지룽에 살았고 오키나와 출신 사람들처럼 대부분의 남자들은 어선에서 일했다. 박선종(*Park Sun-jong*) 씨도 그들 중 한 명이였다. 1913년 거문도[서양에는 포트 아서(*Arthur port*)로 알려짐]에서 태어난 박씨는 약 10년 동안 큐슈에서 일하다가 1942년 가족과 함께 지룽에 왔다. 종전 후에 그의 가족들은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그들은 1946년 4월에 대만을 떠난 한국행 배에 타지 못했고, 한국행 배는 더 이상 오지 않았다.

박씨 가족들이 송환을 기다리는 동안에 비극이 발생했다. 1947년 3월 11일 아침, 박씨는 셋째 아들의 첫 번째 생일을 맞아 수산 시장으로 신선한 생선을 사러 집을 나간 후에 돌아오지 않았다. 가족들과 친구들이 찾으러 갔을 때, 그들은 박씨가 중국 군인들에 의해 트럭에 실려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사람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가 군인들에게 제지되어 수색을 당했을 때에 주머니에서 칼이 나왔다고 한다. 박씨의 딸인 박 연심 씨에 따르면 그 칼은 어선에서 일하는 남자들이 그물과 줄을 자르기 위해 들고 다니는 작은 종류의 칼이었다. 아버지를 잃은 것은 가족들에게 큰 타격이었다. 박 연심 씨는 어머니가 해변가에 있는 남편의 꿈을 꾸 후 자신을 데리고 해변으로 아버지를 찾으러 간 것을 기억한다. 그녀는 바다에 떠 다니는 많은 시체들을 보았다. 그녀의 임신한 어머니는 사고가 있는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이를 낳았지만, 너무 큰 압박과 정신적 혼란으로 자신의 몸도 제대로 돌보지 못할 정도여서 아이는 생후 20일 만에 죽었다. 한편 아버지의 죽음으로 장남 성태는 14살에 학교를 그만두고 어선에서 일해야 했다. 과부는 전통적인 한국 사회에서 저주받은 존재로 보기 때문에 가족들은 귀국 계획을 포기했다. 어머니는 나중에 재혼하여 1977년에 돌아가기 전에 세 아이를 더 낳았다 [아마에(Amae) 2011].

대만 정부가 2/28 사건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발표하자 박씨 가족들은 신청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모았지만 중화민국 시민이 아니면 보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말을 듣고 포기했다. 그 후 2016년에 아오야마에 대한 법원 판결을 알게 된 후에 다시 신청하여 인정을 받았다. 2/28 사건기념 재단은 2017년 2월에 박선종 씨를 두 번째 2/28 사건의 외국인 피해자로 인정했다. 박연심 씨는 2/28 공원에 있는 2/28 사건 박물관을 방문했을 때, 우리 일행들이 사건 피해자들이 거주하던 도시들이 제출한 2/28 사건 피해자들의 이름들이 들어있는 전시물 앞을 지나가는 동안 저에게 애절한 심정을 드러냈다. 그녀는 지룽시를 가리키면서 저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인정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2/28 사건에서 피살되었으므로 아버지의 이름도 이 전시물에 들어있어야 합니다. 한국인 피해자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대만 정부가 인정해야 합니다!”

아마도 박선종 씨가 2/28 사건의 유일한 한국인 희생자는 아닐 것입니다. 대만 한인회

회장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 사상자는 4명이다(사망 3명, 중상 1명) [임(Yim) 1947]. 보고서에는 그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없다. 그렇지만, 한국 동포들의 비극은 한국 신문에 보도되었다. 1947년 4월 5일 경향 신문에 실린 기사에는, 3월 초에 타이페이에서 한국행 귀국 허가를 받기 위해 타이페이로 가는 도중에 남자 2명이 죽고 여자 1명이 강간당했다. 그들은 1946년 10월에 배가 고장나서, 15명의 다른 선원들과 함께 대만에 도착했다 (경향신문 1947 : 1). 필자가 알기로는, 한국 정부나 어떤 시민단체도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지 않다.

### 희생자의 추모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의식이다. 이것은 서양사회보다는 죽은 자와 산 자의 관계를 강조하는 경향이 많이 남아있는 아시아 사회에서 더욱 그렇다. 대다수 가족들이 특히 매년 청명절 (오키나와도 유사) 또는 일본의 오봉 (한국의 추석) 때에 성묘하는 가족묘가 있으며, 집에 고인의 위패를 모셔 놓은 가족 제단이 있다. 본문에서 다른 가족들에게는 돌아가신 분에 대한 기억과 “2/28사건”과의 연관성이 정부의 인정보다 훨씬 중요하며, 정부의 인정과는 무관하다. 대부분의 희생자들에게는 그들의 사망과 2/28 사건의 연관성을 알 수 있는 표지가 있다. 아오야마와 나카타케 양쪽 모두 고인의 위패에 날짜가 “2/28”로 새겨져 있다. 그들의 사망일이 3월 8일 이후일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2/28”은 사실이라기 보다는 가족들에게는 상징적인 의미이며, 그들이 사랑한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대만의 정치적 혼란을 고통 속에서도 기억하게 한다 [고(Koh) 2017 : 217].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박씨의 가족들에게는 아버지의 무덤이 없었다. 그들은 자신이 믿는 기독교 신앙에 따라 돌아가신 분들을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다. 하지만 1977년에 대만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어머니의 시신을 무덤에 묻었다. 1992년에 가족들은 어머니의 무덤을 1976년에 한국인 디아스포라의 묘지로 조성된 국립 망향의 동산(1983년 국립 묘지로 승격)으로 이장하기로 결정했다. 가족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을 묘비에 올리고 아버지의 사망 일자도 '1947년 3월 11일'로 새겼다. 망향의 동산은 사할린, 일본, 중국, 대만 등 해외에서 사망한 1만여명의 영혼들의 집이다.

“긴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영혼”이라는 전통적인 관념 때문에 많은 한국인 재외 동포 1세대들이 국립 묘지에 묻혀 있다. 제2차 세계대전과 1923년 관동대지진으로 사망한 무명의 한국인 수만 명을 기억하는 곳도 바로 이 장소이다. 망향의 동산에서는 개인과 가족의 이야기가 국가적인 이야기 속에 묻혀 버린다. 박선종 씨의 삶은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조국으로부터 쫓겨난 셀 수 없이 많은 희생자들 중 한 명으로 여기는 장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 수렴된다.

## 결론: 화해를 향해

처음에 언급된 바와 같이, 대만의 2/28 사건 관련 문헌에서는 이 비극적인 사건을 “수천명의 중국군들에게 학살당한 무고한 대만인들”로 단순화시켜서 서술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대만 원주민의 희생과 중국군의 잔인함을 강조한다. 이 사건을 총체적인 “국가적 비극”으로 기억하는 이벤트에서는 외국인 피해자의 존재와 그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면서 대부분 무시한다. 하지만 외국인 희생자들의 존재는 우리들을 2/28 사건의 사각 지대 즉, 일본 제국주의의 유산으로 인도한다. 필자는 2/28 사건에서 '일본'이 보이지 않는 당사자라고 주장한다. 오키나와인과 한국인 희생자들은 대만이 예전에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그들은 물리적인 방식으로 대만 이주를 강요받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자국의 영토가 정치적, 경제적으로 일본 제국으로 통합된 것이 그들이 이주하도록 만든 주요한 원인이었다.

여러 제국들의 주변에 위치한 오키나와와 한국의 남부 지역 (거문도와 제주도) 출신 사람들은 고통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 겪었다. 지리적 인접성은 축복보다는 저주가 되었다. 첫째, 일본 제국주의는 더 나은 직업을 찾거나 고국에서 당하는 차별을 피할 수 있는 대만으로 이주하도록 강요했다(당시에는 민족적 차별로 좋은 일자리를 얻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전술한 두 가지 원인들은 서로 얽혀 있다.). 둘째, 그들이 대만으로 이주한 원인이 지리적 인접성이라면, 그 인접성으로 인하여 본 논문에서 언급된 사람들은 쉽게 대만에 드나들 수 있었고, 그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었다. 국민당 군인들이 저지른 잔혹 행위를 경시해서는 안되겠지만, 그러한 공포와 테러의 이야기에 매몰되어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지배 (및 전쟁)의 책임이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해야한다.

## 참고문헌

- 아마에 요시히사, “식민지 독립 이후의 臺灣 韓僑 : 임 두옥 臺灣 韓僑協會 理事長을 중심으로[식민지 독립 이후의 시신들(Postcolonial Bodies): 전후 대만의 한국 교민들과 임두옥 이야기, 1945-1970],” 『리츠메이칸 아시아일본연구 학술보』, Vol.1, 2020: 28-47.
- 아마에 요시히사, “박선중: 2/28事件中朝鮮人/韓僑的受難者 [박선중: 2/28사건의 조선인 희생자],” *The Taiwan Folkways*, 64 (3), 2011: 55-66.
- 아오야마, 에사키, 토케시 가토쿠에 보낸 엽서, 1946년(날짜 미상), 아오야마 케이쇼 개인 소장품.
- 아오야마, 케이쇼, 저자와의 인터뷰, 2018년 3월 1일, 지롱시.
- 아오야마, 타쿠토, “臺灣228事件に まきこまれた 与那国島民 [대만 2/28사건의 요나구니 도민 희생자들],” 『츄오 리뷰』, No. 297, 2016: 121-131.
- 에가미, 마사오, “終戰後の 臺灣室素,” 『日本室素에 대한 證言集』 Vol. 2, Tokyo, 1977: 41-48.
- 카와하라, 이사오 편., *Taiwan Hikiage Ryūyō Kiroku* [대만에서의 송환 및 억류에 대한 기록], Vol. 5, 도쿄: Yumani, 1997.
- 조지 커, 『배신당한 대만』, 런던: Eyre & Spottiswoode, 1966.
- 고 성만, 『희생자의 정치학: 제주 4.3사건과 오키나와/대만의 2.28 사건 역사청산을 둘러싼 고뇌』 [The Politics of Victims: Jeju April 3 Incident, Battle of Okinawa, and Taiwan February 28 Incident], Kyoto: Kyoto대학교 출판부, 2017.
- 경향신문, 대만 혼란 계속 동포 2명 피살, April 5, 1947: 1.
- 허 이린, 『2.28事件: “臺灣人” 形成의 정치인류학』, 도쿄: 동경대학교 출판부, 2003.
- 중국근대역사협회, 『2/28사건에 관한 자료모음』, 타이페이: 중국근대역사협회, 1992.
- 라이, 츠한, 레이몬 마이어스, 웨이 우, 『비극의 시작: 대만의 1947년 2월 28일 봉기』, 캘리포니아: 스탠퍼드 대학교 출판부, 1991.

리 샤오핑, *Ererba xiaoshi de Taiwan jingyin* [2/28사건시 사라진 대만 엘리트들],  
타이페이: Jili wanbaoshe, 1990.

린 지아홍, “Chilai de xhengyi! Guonei di'erli ererba waiji jiashu huopei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다!  
2번째 외국인 가족이 228 사건 배상을 받다],” 『대만교회공보』, No. 3393, March 6-12,  
2017: 1.

마타요시, 세이쇼, *Dai Nihon teikoku shokuminchi ka no Ryukyu Okinawa to Taiwan*  
『대일본제국 식민지배하의 류큐/오키나와와 대만』, 도쿄: Dojidaisha, 2018.

나고시, 히로야스, “대만 2/28사건에서 피살된 일본인들,” 『츄오 리뷰』, No. 291, 2015: 1-8.

NHK, “72년만에 2/28사건에 대한 일본인 희생자 인정,” *NHK News Web*, 2019년 4월 28일,  
<https://www3.nhk.or.jp/news/html/20190428/amp/k10011899411000.html>, 2019년 5월  
29일에 접속.

노라, 피에르, “기억과 역사 사이에서,” *Representations*, No. 26, 특별판: 기억과 반기억, 1989:  
7-24.

오제키, 히로노리, “이시가키 섬의 ‘완벽한 어머니,’” 『츄오리뷰』, No. 297, 2015: 132-  
140.

류큐 신보, “Taiwan “2.28 Jiken kara 70 nen [228사건으로부터 70년],” 2017년 2월 27일.

탕 쉬, “Zuixin yanjiu: 228 shijian shiwang renshu gu 1304 zhi 1517 Jiashu jidong bochi  
[최신 연구: 228사건의 희생자는 1,304명에서 1,517명 사이; 유족들은 조사결과를  
맹렬히 비난] *Mingbao*, [https://www.peoplenews.tw/news/f38b3b50-2686-43e6-af04-  
b86bacb49368](https://www.peoplenews.tw/news/f38b3b50-2686-43e6-af04-b86bacb49368) 2017, 2020년 8월 20일에 접속.

228 사건기념재단, “228 Shijian keneng shouhaizhe mingdan [228사건의 추정 희생자 명단], 1-4,  
기념재단 홈페이지, 2020년 8월 20일에 접속.  
[[https://www.228.org.tw/list\\_announce-view.php?ID=45](https://www.228.org.tw/list_announce-view.php?ID=45)].

우 원싱, “Zhanhou chunian zaitai ribenren liuyong zhengce chutan [중전 초기 억류된 일본인  
상대 정책에 대한 예비 설문조사],” *Taiwan Shuda lishi xuebao*, 33, 2005: 269-285.

야카비, 오사무, “Kengen suru ‘kokyo:’ Okinawa Yonagunito no mitsuboeki shusoku no haikai,” in Iwasaki, Minoru, Okawa Masahiko, Nakano Toshio, and Li Takanori ed., *Keizoku suru shokuminchi shugi* [끝나지 않은 식민주의], 도쿄: Seikyusha, 2005.

임 두옥, “Wei jiuji bensheng hanqiao wuzhi bei koujian Jincheng liqing bing ken zhangjie jinye caizhengbu zongshuiwusi you,” 외무부 아카이브, Academia Historica, May 21, 1947 [020-110400-0006-0014,15].

요코타, 시게루, “대만질소의 추억,” 『일본질소에 대한 증언집』 Vol. 2, 도쿄, 1977: 27-40.

---

<주석 번역>

<sup>1</sup> 필자는 타이난 長榮大學 대만학 대학원의 조교수이다. 연락처 : [amaeyoshi@gmail.com](mailto:amaeyoshi@gmail.com)

<sup>2</sup> 2/28 사건 당시에 정부의 강제 진압으로 사망한 사람은 18,000 ~ 28,000 명 정도라고 알려져 있다. 이 숫자는 2/28 사건의 진실을 조사한 정부의 특별 조사팀(task force)이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의 학자들 연구에 의하면, 사망자 숫자는 정부가 발표한 사망자 숫자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고 한다. 학자들은 사망자 숫자를 1,304 명에서 1,512 명 사이로 추정한다[탕(Tang) 2017].

<sup>3</sup> 이것의 좋은 사례로는 Lee 의 연구(1990)가 있다.

<sup>4</sup> 이러한 비유를 확장하면, 야마토 민족 혹은 내지인(內地人)은 부모가 된다. 일본은 1879 년에 오키나와를 병합했고, 청일전쟁 승리로 1895 년 대만을 식민지로 획득하였으며, 1910 년 일본제국이 조선을 병합하였다.

<sup>5</sup> 때때로 의심스러운 자들에게 키미가요(*Kimigayo*) 즉, 일본의 국가를 불러보라고 요구했다.

<sup>6</sup> 이것은 구 총독부 직원들로 구성된 준 공공조직으로 국민당 정부가 억류한 8,000 명에 가까운 일본인 관료, 엔지니어, 학자 및 가족들과 관련한 업무를 취급했다[우(Wu) 2005].

<sup>7</sup> 아마(Ama)는 중국어로 “할머니”라는 뜻이고, 한국어의 할머니와 같다.